



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떠넘겨

16년간 국민 혈세로 매년 3400억원씩 부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투자원금의 70%를 부담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연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조 9천억 원 중 5조 6천억 원을 '2015~20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의 등으로 자체 상환하고 금융비용과 부족한 2조 4천억 원은 2016~2031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원금은 4대강 수의사업에 다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시

기,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수의사업에 다른 수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에 불과하다. 4대강 투자원금 7조 9천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더 이상 4대강 수의사업에 따른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 투자원금의 70%를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말쑥은 정부가 부러놓고 놓고 뒷수습은 수공이 책임지는 모양새다.

수공의 자체상환 계획을 보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으로 4조 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연주 의원은 "수공은 현재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자체상환 금액도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수공은 22년 동안 매년 2,000억 원 이상씩 상환해야 한다. 2014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993억 원이다. 당기순이익금의 대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재무자를 하지 못해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수공에 족쇄를 채워 놓은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연주 의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연주 의원은 "동 지원방안은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정부는 공기업 부실과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충청권교육감 4명은 9일 오전 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공동성명을 발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여당 대표와 교육부총리 등의 잇따른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언에 대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주도해 만드는 획일적인 교과서와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으며, OECD 선진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어떤 나라든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가 없다"며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서울대학교 역사관 5개학과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비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부와 정치권에 대해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대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안군, 황토서 자란 6년근인삼 첫 수확! 태안군이 초가을을 맞아 황토에서 자라난 인삼이 첫 수확에 들어갔다. 태안을 석선리 4100㎡의 면적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이종연 씨 농가에서는 금주부터 6년근 인삼 첫 수확에 들어갔으며, 수확한 인삼을 한국인삼공사에 전량 납품하는 등 태안인삼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황토에서 자라난 태안군 6년근 인삼은 조직이 치밀해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깊어 인기가 많으며 오는 11월 초까지 수확이 계속된다. 한편, 태안군에는 8월말 현재 총 78농가가 312개소 156ha의 면적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 2조 5020억 원 확보

대전시, 당초 목표액 초과달성... 지난해 비 5.6% 증가한 규모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내년도 정부예산 2조 5020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2조 5000억 원을 초과달성하고, 지난해 확보액 2조 3700억 원 보다 1320억 원이 (5.6%)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분야가 9320억 원(37.3%), 보건복지분야가 7789억 원(31.1%), 국토교통분야가 1325억 원(5.3%) 등의 순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은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 예산반영에 부정적 의견이었으나, 권선택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최종심의를 반영했다.

원도심 내 지식산업센터는 당초 기재부에서 국비 총사업비를 100

억 원으로 심의했으나,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어 15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대전 디자인센터 건립 44억 원 ▲국방기술품원 신뢰성 시험센터 4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45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36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9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21억 원 ▲대덕연구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시립체육재활원 기능보강 사업 39억 원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

업 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68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819억 원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50억 원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조성 63억 원 ▲원도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30억 원 ▲자연마당 19억 원 ▲하소 일반산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70억 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50억 원 ▲자원순환단지 190억 원 ▲의심-유성북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 19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억 원 등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협조를 요청하는 물론 충청권 예결위원과 국회 전문위원 등을 방문해 국회 심사 시 미반영 사업에 대한 증액 발의 등 적극적으로 국비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 '0'

96개 공공기업 채용 3%늘리기 1.8%에 불과... 청년고용절벽 여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전안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제로 증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웍스 등 36곳은 정원외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채용인원이 1명도 없었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 60명을, 나머지 36곳은 6~261명씩 1757명을 늘리는데 그친다.

이처럼 96개 공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2만여 명의 2.8%로 매우 적은 규모다.

모범사제로 홍보되는 전력공사도 2만명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 1.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정원 대비 3%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무리한 목표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

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들어 따라 2016~2017년 공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는 6700명의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1300명의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 인원이 8000명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실업난의 청년세대들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Happy!

지역과 함께하는 신서천화력 행복에너지파크 건설

1

특정지원사업액 320억(국비·지방) / 기본지원사업액 360억(지방·민간)

지역지원사업액 460억(국비·지방 15:85) / 건설인건비 40만명(국비·민간)

2

석탄·유·수·풍·태양 에너지(청로-신력)

고효율·친환경발전기 및 탈황설비 등 최첨단 친환경 발전설비 채택

3

충부협력 산업단지 발전기형 전력 공급기차 역활

충청권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공사일비 1.5 6.1.15.15.15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본부

충청권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공사일비 1.5 6.1.15.15.15

백석대학교는 지난 1994년 기독교학교로 개교한 4년제 대학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교훈으로 2014년 기준으로 기독교학부, 어문학부, 사회복지학부, 법경찰학부 등 총 12개 학부, 5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최강종 총장을 중심으로 각 학부 교수들이 지역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백석문화대학교 또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현장 실무형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백석문화대는 15개학부, 9개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영식 총장을 필두로 많은 교수들이 미래의 주인공인 스타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대학교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대전투데이는 수험생들을 위해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백석대학교

수시 2121명 선발...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 가능

<백석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특징>

백석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내 1,909명, 정원외 21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일반학생, 사회기자 및 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등)과 학생부 60%+면접 40%로 선발하는 백석인재1전형 등이 있으며, 학생부 교과영역은 국어·수학·영어·사회(국사 포함)·과학과 중 상위 3개 교과 전 과목을 석차 등급으로 반영한다. 모든 전형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백석대학교는 정원내에서 일반학생 685명, 사회기자 및 배려대상자 60명, 지역인재 143명, 체육특기자 35명, 백석인재 1886명, 백석인재 2100명을 선발한다.

또한 정원외의 전형(212명)으로 특성화고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해5도민, 단원고 특별전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원외의 전형 지원을 우선 고려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석인재2(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평가에서 '학생부 50% + 비교과' 자 기소개서 5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평가에서 '1단계 평가 성적 40% + 심층면접 60%'로 최종 선발한다. 특히, 수험생에게 합격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수시원서접수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면접구술고사는 수능일 이전인 2015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백석인재2(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고사는 2015년 10월 1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기고사는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백석대학교는 12개 학부 49개 전공에 12,000여명의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 대학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보건학부 전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계열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석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중 30% 내외의 학생들이 복수전공 및 다중전공을 신청할 정도로 복수전공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졸업할 때 두 개 이상의 전공 이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학부, 어문학부, 사회복지학부, 관광학부, 디자인영상학부 등 일반 전공에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사범학부가 아닌 일반 전공의 졸업생들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유치원정교사(2급) 등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백석대학교는 2014년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67.5%(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 382만원)에 달할 정도로 장학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하여 가장 많은 등록금을 인정한 곳이 백석대로 2010년 대비 2014년 10.3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군중사관후보생에 선발된 자에게는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 시(대학원 진학대학원 포함)까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학부 장학금과 대학원 장학금이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백석대학교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을 통해 통학이 가능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6개 지역에서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대학이다. 또한, 기숙사(백석학사는 2015년 현재 820명 규모)나 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2016년 5월에 완공하여 8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백석 Vision 2020'을 통하여 ①기독교적 인성·영성·감성·지성 구현대학 ②선진교육 중추대학 ③글로벌(Global) 지향대학 ④연구·행정·인프라 혁신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더욱 주목되는 대학이다.

백석회 입학관리처장은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백석대학교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교생활 적응과 향후 취업을 위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이 대학교 입학에서 졸업 후까지 끊임 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껏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16학년도 백석대 수시모집 주요사항

1.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5. 9. 9(수) ~ 9. 15(화)
2. 수시모집 입시특징 : ☆ 전 모집단위 문·이과 교차지원 가능 ☆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백석문화대학교

적성·인성 위주 비교과전형으로 133명 선발

<백석문화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신 입생 모집 주요사항>

백석문화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내 2,234명, 정원외 376명 총 2,610명을 선발한다.

정원내 모집인원은 수시1차에 1,310명(일반전형 977명, 특별전형 160명, 비교과입학전형 133명, 기술사관육성전형 40명), 수시2차에 924명(일반전형 617명, 특별전형 105명, 자매결연고교전형 202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1차 접수는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마감당일 17:00까지)이며, 면접실기고사는 2015년 10월 14일에 실시된다(단, 수시 1차 비교과입학전형 면접은 10월 17일 실시). 수시2차 접수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면접실기고사는 2015년 11월 26일에 실시된다.

접수 방법은 본 대학 접수창구(자유관 1층 입학관리처)를 통한 방문 접수, 원서 접수 대행 업체에 접속(www.uwayapply.com, www.jmhapply.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그리고 우편접수가 있다.

면접·실기고사는 일반전형의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디자인학부를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4일 면접을 실시하며 고사내용은 인성 및 태도, 적성 및 학업성취 의욕, 기본 수화능력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실용음악학부는 10월 14일, 보컬은 15일까지 실시된다. 고사내용은 자유곡 1곡 부르기 또는 연주로 진행된다.

스포츠레저학부는 10월 14일, 윗몸일으키기와 체전굴이, 태권도전공은 품새(고려), 태권도 기본발차기이다. 특별전형을 지원한 학생은 면접이 없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한 학생을 선발할 목적으로 비교과입학전형은 유아교육과를 비롯한 14개 학부(과)가 10월 17일(토)에 면접이 실시되며 인성적 역량, 전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형구분별 성적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학생부성적을 100% 반영하여 선발하나, 일반학과는 면접 및 실기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단위는 일반전형의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디자인학부와 기회균형선발전형(농어촌학생, 저소득층)의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로 성적반영비율은 학생부 80%+면접 20%이다.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는 일반전형의 스포츠레저학부, 실용음악학부이며, 성적반영비율은 학생부 40%+실기 60%이다.

비교과입학전형은 학생부 비교과영역 평가 40%+면접고사 60%이다.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중 최우수 1개 학기 전체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단,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는 해당학기에 영어와 수학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성적을 보면 치위생과가 평균 3.14등급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간호학과(3.2), 유아교육과(3.87), 방사선과(4.12), 경찰경호학부(4.78, 보건행정과(4.9) 그 밖의 학부(과)는 평균 5.5등급이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23일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는 농협, 국민은행, SC은행을 통해 12월 11일(금)에서 12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백석문화대학교는 올해 입시에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 입시생의 요구 등의 분석을 토대로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부(과)를 구조 조정 및 정원 조정을 시행하였다.

백석문화대학교의 모집단위는 인문사회계열의 유아교육과(3년제), 글로벌 어학부, 경찰경호학부, 경영·회계학부, 광고·마케팅학부, 관광학부, 사회복지학부, 글로벌의식관광학부, 자연과학계열의 외식산업학부, 식품영양과(3년제), 보건행정과(3년제), 안경광학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방사선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공학계열의 컴퓨터공학부, 스마트미디어학부, 예체능계열의 스포츠레저학부, 실용음악학부, 디자인학부이다.

백석문화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3년제)를 신설하여 30명을 모집한다. 푸드서비스산업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영양관련 분야인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미래 지향적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 및 현장 실습을 통하여 급식 및 외식산업, 식품영양, 위생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백석문화대학교의 특색있는 학부(과)는 글로벌의식관광학부이다. 글로벌의식관광학부는 교육부의 해외인턴십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2010학년도에 전국최초로 개설되는 학부로 영어 중국어의 2개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관광가이드, 호텔리조트, 글로벌 외식조리 전공의 세 전공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며 마지막 4학기에는 각 언어권 국가의 기업체에서 1학기를 외국 기업체 현장에서 실습 수업을 함으로 외

국어 실력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 각 언어권 국가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재로 기르는 학부이다. 호주를 비롯하여 현재 600명 이상 취업 및 인턴십을 실시한 실적 이 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외식산업관을 구축(2016년도 3월 완공 예정)하여 현장실무 중심형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식산업학부는 호텔외식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외식서비스경영전공으로 구성되어 모두 현재와 미래 각광받는 전문 직업으로서 성공적인 직업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백석문화대학교의 입시제도 중 가장 주목할 사항으로는 비교과입학전형을 들 수 있다. 비교과입학전형을 성적위주의 학생 선발을 지양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으로, 선진형 입학전형의 활성화 및 성적보다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한 학생을 선발하는 물론, 산업수요를 고려한 취업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입선고교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6학년도 수시1차 비교과입학전형의 학부(과)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5명, 글로벌어학부 8명, 경영·회계학부 8명, 광고·마케팅학부 5명, 관광학부 22명, 사회복지학부 25명, 글로벌의식학부 9명, 외식산업학부 23명, 보건행정과 8명, 안경광학과 3명, 치위생과 5명, 방사선과 2명, 간호학과 5명, 컴퓨터공학부 5명(총 133명)이며 14개 학부(과)가 참여한다.

전형방법은 총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점 1000점에 1단계는 비교과영역 서류심사로 40%인 400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각 학부(과)별 서류 심사위원으로 총 3명(교수 2명, 산업체 인사 1명)을 구성하여 지원학생의 학생부비교과영역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영역은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준취득, 수상경력,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외체험학습,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로지도상황 등이 포함 된다.

2단계는 면접을 보며, 60%인 60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인성적 및 전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3단계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시의 공정성과 공평성 및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며, 이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정환기자

● 동 정 ●●●

전국기능경기대회선수들 격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0일 오후 2시 동아 마이스터고 및 대전신일여고를 방문해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격려.

사단법인 토닥토닥 개소식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10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에서 열리는 '2015 학교운영위원 정책 연구' 참석, 오후 2시 유성구 봉명동 동아벤처타워에서 열리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개소식' 참석.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식



한현택 동구청장= 10일 오전 10시 충무체육관에 서 개최되는 제26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



박용갑 동구청장= 10일 오전 10시 충무체육관에 서 개최되는 '제26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주민의견 청취



장종태 서구청장= 10일 오전 11시 도마동 대아아파트 '야의 운동기구 설치건의'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 청취.

제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유성구 '대통령상' 수상

유성구구청장 허태정은 8일 서울 삼남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환경부 주관 '제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환경부에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를 종합평가한 결과로 유성구는 대상을 수상하여 정부포상인 대통령기린표창을 받았다.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에 예비심사와 본 심사, 현장실사의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11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고 유성구는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평가 지표는 발생량 감량성과, 종량제 개선사례 등 6가지였으며 유성구는 발생 원인별 맞춤형 시책 시행,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지킴이 운영, EM발효액을 이용한 음식물 퇴비 활용 사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유성구 음식물쓰레기는 2011년 10월 종량제 전면시행 이후 13%가 감량됐다.

허태정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의 덕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태선 기자

2015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막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프로그램 소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2015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B1홀에서 개최된다.

충청권 3개 시·도의 대표적 협력사업인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목표로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우

수제품 전시 및 마케팅 상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매년 충청권 3개 시·도가 번갈아가 주최하고 있다.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바이오·식품관, 전기·전자관, 기계·부품관, 환경·에너지관 등 총 70

개 기업(대전 23개, 충북 24개, 충남 23개) 90부스 규모로 참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홍보관과 지역행사 홍보관을 신규로 설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창업 및 예비창업기업, 중

소벤처기업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기술 제품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국내유통바이어 상담회, 수출·투자 상담회, 기술이전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대전지사

청각장애인과 특별한 문화생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지사장 윤의민)는 지난 8일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협회장 지교하)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공단, 협회 직원 및 청각장애인 20여 명은 할리우드영화인 '엔트맨(3D)'를 관람하면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시사와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2012년 11월 수화통역·고용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2014년 8월부터 매주 화, 목요일마다 수화

통역 전담 지원인력을 위촉해 공단에 내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고용연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 또한 위 협약에 기반해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용 및 복지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농아인협회 박 모씨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영화와 같은 문화컨텐츠를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청각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을 통해 한국영화를 즐기기도 한다. 공단과 함께한 이번 활동은 기존의 것과 다르게 3D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동구, 관내 3개소 아파트 업무협약 체결

건강 증진 실현 '상생' 협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9일, 동구보건소 3층에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동 새들피 휴먼시아 2단지, 대성동 은어송 마을 2단지, 낭월동 남대전 e-편한 세상

등 3개소 아파트 주민 건강을 위한 상호협조 체계 마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아파트 내에는 향후 건강검진단이 조성되고, 건강인식 개선 및 행동변화를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 촉진자(facilitator) 육성에도 힘써 이들을 활용해 지역의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결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제만 보건소장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능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집 고쳐주며 이웃 사랑 실천

대전농협, 농가3곳 주방 노후시설교체 등 봉사활동 실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승현)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9일 특구 노인교와 지체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3곳의 화장실과 주방 노후시설교체, 도배 및 장판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송병배 기자

이번 봉사활동에는 도배와 장판교체, 화장실 및 주방 노후시설 교체에 재능이 있는 대전보로관찰소 사회봉사대장자도 참여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산내농협, NH개발 대전충남지사 및 NH농협은행보령 대전지역총국등 범농협이 함께 참가했으며, 특히 대전농협노조와 산내농협은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회공헌기금을 봉사활동에 기부함으로써 농가에 농협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일했다.

대전농협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다시 돌아보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대덕구 문화해설사 시범 운영

회덕향교 올바른 이해·효율적 탐방활동 지원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9월과 10월 매주 주말 회덕향교에 문화해설사를 시범 배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학교 밖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회덕향교에 문화해설사를 배치해 회덕향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탐방활동을 지원한다.

정여택 평생학습원장은 "회덕향교 1일 체험교실에 다녀간 아이들

이 1일 체험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과 재방문을 통해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 배우고 지역의 문화재를 알기 좋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교 해설을 원하시는 주민들은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회덕향교를 방문하시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평생학습원(042-608-6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시 거주 외국인 가족 초청 팸투어 실시

관광명품도시 대전 알린다

대전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분국 가족을 초청하여 팸투어 및 대전관광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 방문단은 카이스트, UST,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대전소재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가족 4개국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는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으로 세계 속의 관광명품도시 대전 알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전에 대한 대외적인 호감도를 제고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한

편, 이번 초청 시범상품 운영에 선정된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 홍보 사포터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단은 유성온천, 화계박물관, 계족산 맨발힐링길, 뿌리공원, 원도심 일원, 장태산자연휴양림 등 대전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근지역인 금산의 인삼관과 약초시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대전시 박성룡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시범상품 운영으로 대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전 지역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소비자-기업 행복한동행 캠페인

대전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지난 4일, 8일 유동인구가 많은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대전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 및,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복한 동행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2014년도에 진행됐던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캠페인' - '감정노동자, 존중받아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의 후속편으로, '정중하게 대우하고, 존중하게 요구하기'라는 의미의 '정정하자'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진행됐다.

송병배 기자

중증장애인 갯벌체험 실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중은 무지개복지센터 주간보호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개개GO, 신나GO' 갯벌 캠프를 9일 충남 서천군 선소리 갯벌체험마을에서 실시했다.

중증장애인 20명은 공단 직원들의 보호를 받아 서천 갯벌 체험장에서 장화를 신고, 갈고리를 이용해 갯벌에 직접 들어가 조개도 캐고, 살아있는 다양한 바다 생물도 관찰하며 자연이 준 선물을 만끽하며 모처럼의 나들이를 즐겼다.

이번 갯벌 캠프는 정서 및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평소 바닷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하며 개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이 자연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자유와 재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구-서구의사회, 사랑의 의술선사

무료 의료봉사 협약 체결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9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서구의사회' 회장 김영일과 '사랑의 무료 의료봉사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서구의사회'와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구의사회'는 의료인력, 의료 장비,약품,검사 등 의료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제공하며,

서구는 더 많은 의료 취약 주민들이 무료 진료·검진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김영일 서구의사회 회장은 "이

번 협약은 평소 진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특히 우리 의사회가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사랑의 무료 의료봉사는 일회성이 아닌,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의 지속적이고 질 높은 의료봉사가 될 것이다."며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의술은 진정한 사랑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중구 어린이집 안전간담회 열려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행복한 아이, 존중받는 아이'로 키울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전간담회는 지난 9일부터 4차

회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원장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아동학대에방 동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복한 아이, 존중받는 아이'로 키울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구는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폭력, 성폭력 예방교육과 소방훈련, 통학차량 안전교육 및 급식위생 등에 관한 교육과 대응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안전한 어린이집 활성화에 기여한 운영위원을 표창하고 어린이집별로 안전책임관제를 운영하는 등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사와의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안전간담회가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참석범위를 보육교직원까지 확대해 통합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등 더욱 행복한 어린이집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덕대학교, 2009년 이후 캐나다·호주·일본 등 55명 파견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열린선발’ 선정

대덕대학교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열린선발 사업에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캐나다와 일본으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전문대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경험하게 해 산업체 현장 적합성과 국제 경쟁력을 겸비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사업은 공인어학성적을 보

유한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열린선발 전형은 어학성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해외현장학습의 참여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지원하여 서류평가, 기초역량평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서 1,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고, 16주간 캐나다와 일본에서 어학연수 및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이정복기자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연이은 성황

8일 해님님 강연 600여명 호황, 시민 행복지수 높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품은 흥미진진 공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폭넓은 교육문화실현을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 교육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이 연이은 호황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2강 교양강좌에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 멘토이자 마음치유의 동반자인 헤민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연을 진행,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강연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명언으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연 후에는 관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전공과정인 지역혁신리더과정과 시민문화선도과정도 우수한 강사진의 열띤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 등을 바로 알고 애항심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등 감동과 열기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닭고기, 계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충남농협, 구구(9·9)데이 소비촉진 행사 실시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권형)는 9일 9·9데이를 맞아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계란 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구구’는 예로부터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부르던 것에 착안해 지난 2003년부터 모두 불러 모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날로 정해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13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치킨·구운계란 무료 시식 ▲참여

시민에 대한 닥트 게임을 통한 후라이드 치킨 등 경품 제공 ▲가족사랑 계란 무료 증정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농협충남지역본부 조권형 본부장은 “1고 3저 닭고기는 단백질은 높고 지방과 칼로리, 콜레스테롤은 낮은 건강식품이고 완전식품인 계란은 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편리한 식품”이라며 “우수한 맛과 건강식품인 우리 닭고기와 계란 등 우리 축산물을 더욱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App) 형식적 운영 드러나

학생들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내용 다수 포함되는 등 개선 필요

아산시, 8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발표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을 출시했지만, 5개월 동안 설치자가 전체 학생의 1%의 불과한 6만여명에 그쳤으며 해당 앱 자체도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 분석 의뢰한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기준으로 안전매뉴얼 설치자 수는 63,657명이며 앱 설치자의 접속 횟수는 146,460번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6,285,792명임을 감안할 때, 설치자가 모두 학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 1%의 학생들만이 해당 앱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설치자 수와 접속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앱만 개발해 놓고 지속적인 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앱 내용 자체도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예방 측면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이후’ 행동수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수칙도 학생이 아닌 성인 피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었다.

실제 아동학대 발생 시 ‘주변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폭력을 당했을 땐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인하라고 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에게 현실적합성이 낮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신고의 경우 학교폭력 경우

117, 집단 따돌림 112, 아동학대 112 또는 129, 성폭력 1899-3075 또는 1366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고절차 역시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이용률을 낮고 내용 적합성도 떨어지는 앱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며 “안전교육은 평생수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

아산시가 지역에 공급되는 음용수에 대한 8월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민이 음용하는 수돗물은 현재 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과 수자원공사 아산정수장, 아산시 용화정수장 등 총 3곳에서 공급되고 있다. 3곳의 정수장의 수질 검사 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 철, 망간, 아연, 동, 유리질류염소, 기타 무기물 및 유기물 성분 등에서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관내 온양2동, 온양5동의 노후관 수도꼭지에서 기준치에 적합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정수장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 하더라도 일부 가정에서 물탱크 청소 상태, 옥내배관의 노후,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때 오염(조리한 음식에서 냄새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등 ‘음식점 등에서 부득이 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때에는 수도용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홍성범 본부장, 김제식의원에 현안사업 국비예산 반영 건의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9일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 국회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예산 반영을 건의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정부가 전년에 3% 증액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하였지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0억원이 감소한 상황이다. 한·수해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

고, 미래 복합영농 기반조성과 FTA협관세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2000억원 이상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의원은 “농어촌 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인 항구적 가뭄극복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대응력 강화 및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과 수자원 확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마무리단계 조기 준공과 조성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 복합영농 기반조성 투자확대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농지규모화·집단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2030세대 육성 등 변화하는 농정환경에 맞춘 신규사업 예산 지원에 관심을 가졌다. 김태선기자

메리케이 ‘핑크 드림 도서관 29호’ 당진에 개관

‘이름다운 실천(Beauty that counts)’의 일환

당진시가 9일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홍장당진시장, 메리케이코리아 노재홍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규성 부회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핑크드림 도서관 29호점을 개관했다. 핑크 드림 도서관은 메리케이가 2008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이름다운 실천(Beauty that counts)’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개관한 핑크드림도서관은 메리케이코리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 60평방미터의 공간을 리모델링 해 다문화 체험과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참석해 도서관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일반도

서, 다문화도서, 다국어 도서 등 1000권 이상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및 한 부모 가족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해 성공적 정착에 도움을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메리케이코리아 노재홍 대표이사는 “핑크드림 도서관 후원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도서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우체국, 토요일배달 14개만에 부활 12일부터 시행

서산우체국(국장 정종춘)은 우체국택배 토요일 배달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2일 토요일부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택배를 배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 보장과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토요일 배달을 중단하였으나, 국민의 우체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간 협

의를 통해 약 14개월만에 토요일 택배배달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토요일 배부 후 시행 이후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농어민, 신선식품 발송업체,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 토요일 배달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체국에서는 토요일배달 재개와 함께 업계 최고의 익일배달률, 신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간 협

안정한 배송, 실시간 종추적서비스 등 우체국택배만의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아울러, 서산우체국은 토요일 배부 시행 이후 이탈한 고객에 대해서는 휴무이전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장기이용 할인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서산=김정환기자

aT, 오는 14일 지역과 상생하는 행복나눔장터 열

“로컬푸드,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오는 14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 aT본사 1층 로비에서 행복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복나눔장터는 사내 소비자 협동조합인 aT 행복한 먹거리 협동조합과 aT 여직원 모임인 여일회의 공동행사로, 협업하는 사내문화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계획했

다. 이번 행사에서 aT 행복한먹거리 협동조합은 전남 무안의 일로농장과 연계해 이동형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동형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지역의 100여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 150품목을 판매하며 건강한 먹거리로써 로컬푸드를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

지할 계획이다. aT 여직원회 역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고물품 100여점을 기증받아 플라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행사는 14일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까지 참여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정신장애인 대상·자아 존중감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 나누는 ‘사랑 빵’ 나눔 프로젝트



청양군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나눔을 통한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 빵’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회원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영농조합 선한이웃(대표이사 유성애) 및 대한적십자봉사회와 협력,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앞으로 두 달간 주1회 총 8회 운영될 예정이다.

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질환 개선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과제빵 기술 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재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들어진 빵을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직업재활로까지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세종시 농업경영인 대회’ 성료

회원 등 7000여명 참가... 8-9일 합강캠핑장서 열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농업경영인대회 축제 ‘제2회 세종시 농업경영인대회’가 8-9일 2일간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열렸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회장 김정기)가 주최하고 세종시와 NH농협이 후원한 이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등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이번 행사는 단체즐거움, 수박빨리 먹기, 릴레이게임, 농촌체험, 화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최식에는 이춘희 시장, 이해진 국회의원 임상진 세종시의회 회(회장 김정기)가 주최하고 세종시와 NH농협이 후원한 이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등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신축 공동주택 15%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환경부, 점검 결과... 어린이집은 5.5% · 의료기관은 2.5%

지난해 전국의 새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15%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공동주택 111곳(81개 지점) 중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기준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모 어린이집(430㎡ 미만)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초과 항목은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된다. 톨루엔은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많이 방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의 새집증후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에 현행 사후실험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한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도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입주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베이크아웃, 환기 등)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연거리는 ▲시교육청 벚거리-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600m)과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아파트지역 보행로구간 제외/400m)이다.

대전 최초의 금연거리라 흡연자 관리, 단속요원, 제도 실효성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구는 2015년 7월 15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근거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단속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중구, '장수기원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봉사활동 가져 중구 석교동 자원봉사팀(팀장 송진실)과 옥계자율방범대(대장 하태수)는 9일 석교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기원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무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실시 지난 8일 당진시 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당진시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를 개최해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갈고닦은 화재진압 기술 경연을 펼쳤다.



천안동남소방서, 호서대 부속유치원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8일 오전 호서대 부속유치원 어린이 및 교사 11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소방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대비 특별 교육·훈련 지난 9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에 정자 5명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금산소방서, 관내 죽당어린이집 소방안전교실 운영 8일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체험장에서 죽당 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 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초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안전공단대전충남본부, 독성가스 제조업체 안전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장석봉)는 지난 7일 가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대전 소재 독성가스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서불안 '관심군' 학생 30% 병원치료 못받아

2014년 관심군 학생 8만 7959명 중 6만 여명(68.9%)만 조치

최근 발생한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건 이후, 정서불안 학생들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의 정서불안 상태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불안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학부모의 거부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검사 결과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아무런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 7959명으로 이 중 전문기관에서 2차 조치가 취해진 학생은 68.9%인 6만 570명이었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병원·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30% 이상은 조치를 받

지 못한 것이다.

정신적 문제를 파악하고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학부모의 거부나 비협조 때문이다.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속 조치를 하려 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학생을 강제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 사회악 근절 로고(Logo) 호응

아산경찰서, 주민 친화적인 홍보 활동 강화 위해 제작



노랑, 학교폭력은 파랑, 가정폭력은 녹색, 불법성품은 보라색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번에 제작한 로고는 아산시청 등 기관, 학교와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인성이 높은 위치에 부착 홍보할 계획이며 '아산맑은살' 등 지역특산물 등에도 부착하여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이다.

홍성훈 아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자칫 딱딱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4대 사회악 근절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디자인 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경찰은 이러한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외에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서에서는 지난 4월에도 장애인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웹툰을 자체 제작 및 홍보를 실시해 지역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4대 사회악 근절활동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주민 친화적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4대 사회악 근절 로고(Logo)를 자체 제작했다.

로고(Logo)는 아산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노력을 내외 클로버의 꽃잎인 형상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했고, 성폭력은

태안해경, 추석절 및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 대책 추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 대비... 대책 수립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추석절 및 가을 행락철 유·도선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상황대응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체 영업상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집

중기간"을 운영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의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 음주운행, 법정선원 미승선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출항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사용 및 비상탈출구 확인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관계기관의 운항통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경찰서 포도대장, 학교폭력근절 위해 정산중학교 출두



청양경찰서(서장 조기연)는 9월 8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정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포도대장복을 입은 학교폭력전담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총 출동하여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학교 전담경찰관의 인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의식을 입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이날 포도대장을 입고 캠페인을 했던 청양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며, 친근하게 다가가자 처음에는 학생들이 낯설어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포도대장과 셸기를 찍으려고 하면서 재미있어 했다고 한다.

청양=정상범기자

세종시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특별 설비점검 시행

한전 대전충남본부, 전력공급 핵심설비인 지상기기 점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권식)는 세종시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지난 7일 ~ 9일까지 3일간 전력공급 핵심설비인 지상기기(CLS차단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해 세종시에 시범 적용된 CLS(Closed Loop System) 배전방식은 고장이 발생된 지역만을 신속하게 자동 분리 공급을 위해 지난 7일 ~ 9일까지 3일간 전력공급 핵심설비인 지상기기(CLS차단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세종시에 적용된 CLS 배전방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CLS 배전방식용 차단기기의 이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지난 1월 개발에 착수, 8월 전복 고장의 전력시험센터에서 성능검증을 거쳐 개발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자체개발한 CLS 진단장비와 열화상카메라 등 과학적 진단장비를 이용해 지상기기 32대를 정밀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세종시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2016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9월 10일(목)~15일(화), 2,506명 선발

충남대가 9월 10일(목)~15일(화),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충남대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전형 등 총 2,506명을 선발하게 된다.

충남대의 이번 수시모집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완화,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신설, 교과전형 봉사활동시간 반영 확대, 모집단위 통합 등 전형결과와 변화를 가져 올 변인요소를 고려해 지원전략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교과일반전형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시모집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2015학년도 전형결과를 참고해 지원한다면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교과 특별전형은 외국어와 한국사 자격증을 토대로 진행했던 재능우수자전형이 지난해 보다 9명 줄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원해 예정이다. 지원을 고려했던 수험생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선발인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충남대가 9월 10일(목)~15일(화),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충남대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전형 등 총 2,506명을 선발하게 된다.

충남대의 이번 수시모집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완화,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신설, 교과전형 봉사활동시간 반영 확대, 모집단위 통합 등 전형결과와 변화를 가져 올 변인요소를 고려해 지원전략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교과일반전형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시모집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2015학년도 전형결과를 참고해 지원한다면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교과 특별전형은 외국어와 한국사 자격증을 토대로 진행했던 재능우수자전형이 지난해 보다 9명 줄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원해 예정이다. 지원을 고려했던 수험생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선발인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정복기자

구직자 40% “대기업보다 중견기업 더 선호”

<사람인>구직자 655명 대상... 목표 기업 형태 선택한 기준 1순위 ‘연봉’

을 하반기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자들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취업 목표로 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655명을 대상으로 ‘취업 목표 기업 형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36.3%)이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중소기업’(32.2%), ‘대기업’(16.8%), ‘공기업’(14.7%) 순이었다. 목표

기업 형태를 선택한 기준 1순위는 ‘연봉’(25.2%)이었고, 계속해서 ‘복지후생’(15%), ‘야근 등 근무환경’(11.5%), ‘거리, 지역 등 위치’(9%), ‘조직문화, 분위기’(8.7%), ‘성장 가능성’(7.8%)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향은 얼마나 될까? 2명 중 1명(47.6%)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입사 지원하려는 이유로 ‘빨리 취업하는 것이 중요해서’(41.7%), 복수응답률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취업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38.8%), ‘원하는 일이면 기업은 중요하지 않아서’(28.5%), ‘자격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서’(27.9%),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21.5%),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할 생각이어서’(18.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89.4%는 중소기업 입사를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관련 정보 수집 어려움’(41.9%), 복수응답, ‘채용공고가 무성의하거나 부실함’(40.5%), ‘지원 후 결과 확인이 어려움’(38%), ‘연령 등 차별조항 많음’(35.5%), ‘후기, 촉보 등 취업정보 부족함’(24.4%) 등을 들었다. 이정복기자



최고진 교육감, 관내 수능 수험생 대면 격려

세종시의 고3 학생 편성된 모든 학교 방문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6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세종시의 고3학생이 편성된 모든 학교를 방문하며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막바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힘을 북돋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담임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최 교육감은 지난 3일 도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세종여고까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전체 학교를 돌며 수험생 한 명 한 명 모두를 만나 대면 격려하고 있다. 특히, 최 교육감의 이번 격려 방문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피한 저녁 식사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사항들은 지양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2013년 학교 문을 열고 올 해 첫 시험을 치르는 세종국제고 99명의 수험생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세종시 첫 특목고 졸업생으로 갖게 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논산중앙초,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 실시 지난 8일 오후 새솔빛방에서 5학년 학생(175명)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 스티브 김 초청 학부모 특강

명사가 들려주는 자녀의 진로 지도 및 글로벌 인재의 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학부모대상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전 지역 초, 중, 고 학부모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팝페라 가수의 식전 공연 행사를 시작으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진로 특강과 꿈·희망·미래 재단 이사장인 스티브 김의 ‘글로벌 인재의 조건(부자들의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진로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명사를 초청 진로 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설동호 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자녀가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소 자녀의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번 명사로 초청된 스티브 김은 ‘글로벌 인재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미래를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등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정환기자



서산 인지초, 겨울나기 김장 배추 심기 서산 인지초등학교(교장 한인희)가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교내 텃밭에 배추심기를 실시했다. 우리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될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를 심는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개막

충남교육청, 진로발달 과정·자유학기제 등 3개 영역 11개 주제관 운영



충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제4회 충남진로체험전이 9일 아산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김지형 교육감을 비롯한 20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진로체험전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2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는 슬로건 아래 진로의 인식이 켜지고, 탐색하며, 결정하는 학생 진로발달 과정과 자유학기제 등 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맞춰 3개

영역 11개 주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40여개 직종의 직업체험관, 증강현실 및 영상 체험을 제공하는 직업세계관, 학생과 학부모의 동반 상담, 개그맨 정종철 등 저명한 직업인 멘토 10명이 진행하는 강연관, 60여개의 학생 동아리 공연장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꿈 트리, 행복엽서 만들기,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휴식 공간이 행사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청양남양초, 발로 뛰고 몸으로 느낀 우리 마을 ‘남양’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 8일, 2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둘러보기 및 마을사람들이 하는 일 알아보기’라는 교육활동 등 주제로 우리 동네 둘러보기 활동을 실시했다.

당진 송산중, 아침운동으로 뇌를 깨운다

아침운동 ‘화목한 런(Run)런(Learn)’ 실시



당진 송산중학교(교장 서형근)는 아침 8시 20분부터 뇌를 깨우는 아침운동 ‘화목한 Run Learn’을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침 걷기 운동을 통해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뇌를 활성화 시켜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화목한 런

(Run)런(Learn)’을 운영한다. 1, 2학년 대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1교시 수업 전 아침 30분씩 운동장에 모여 ‘파워워킹’으로 뇌를 깨우고 있다. 양 팔을 90도 각도로 힘차게 흔들며 보폭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감 있게 걷는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교육지원청, Wee풍당당 캠프 실시

Wee센터 위기학생 자아성장 위한 ‘Wee풍당당 캠프’ 실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택)은 9월 10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내 위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2015학년도 자아성장 프로그램 ‘Wee풍당당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관내 중, 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체험과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인한 자아 탐색, 긍정적 자아상 확립을 통해 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다. 캠프 기간 동안 전문 강사를 통해 청소년 리더십, 자기표현능력 개발 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집단 레크리에이션, 수련활동 오리엔티어링을 비롯한 공동체 활동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참가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통한 자아성장, 학업중단 예방과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또래 관계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정성범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수유자 중심의 학부모교육 운영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옥동)은 9일 좋은나무숲 유치원에서 ‘직장(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학부모 교실은 유치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생로병사의 비밀 등을 제작한 신성욱 PD의 ‘뇌가 놓은 아이-아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아이의 건강하고, 똑똑한 뇌의 비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다. ‘직장(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 제고 및 맞춤형 학부모교육 확

대를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천안시 시민교육지원센터에서 시작으로 신가초등학교, (신가초, 대흥초, 성환초, 천안동성중, 성환중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불당 파크밸리 아파트에서 학부모 교실을 운영했다. 이처럼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확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 목천지역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천중학교에서 학부모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금당초 서각반, 전국대회 수상작품 전시회 대상

전통문화예술 학생 인성교육에도 도움 전교생 큰 호응

금당초등학교(교장 이재호)서각반이 전국대회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보여 대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선정한 2015 농산어촌예술평화제 학교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한국서각진흥협회 정지완 선생을 주축으로 김종표, 모영섭 선생이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각수업을 실시한 결과이다.

서각은 전통문화예술분야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낯설어 걱정이 없지 않았으나 3~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호응이 커져 사단법인 한국서각진흥협회가 주관한 서각 전국대회에 3~6학년 학생들이 대거 작품을 출품했다. 그 결과 5학년 최선일 학생이 대상을 받는 등 모든 학생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뒀다. 송병배기자



충남 장애학생체육대회, 더 넓고 높은 꿈을 향해 아산배봉중학교(교장 최지석)는 지난 4일, 충청남도교육청과 삼성 SDI 천안사업장이 공동주최하고 예산군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2015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 은 5개, 동 1개 등 총 9개의 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루었다.

● 정 ●

정례브리핑 개최



이철희 세종시장은 10일 오전 10시에 정읍실에서 정례브리핑 개최.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폐막식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0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폐막식' 참석.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회의



김석환 홍성군수는 10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추석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회의 참석.

예산축합 종합청사 준공기념식



황성봉 예산군수는 10일 오후 2시 예산축합에서 열리는 예산축합 종합청사 준공기념식 참석.

서해선 4개역 '연계교통망 구축' 본격추진

道, 내년 연구용역 추진... 진출입로 개선·대중교통 연결 방안 모색

충남도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주변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9월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난 5월 첫 삽을 뜨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서해선 노선에 신설 또는 개량 설치될 4개역에 대한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용역은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환승역인 홍성역과 신설 예정인 예산 삼교, 당진 합덕, 아산인주 등 4개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역사별 시설 현황과 미래 교통 수요를 살피고, 진출입 도로 및 주차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체계를 분석한다.

이어 진출입로 개선 및 대중교통 연계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계획 수립과 부문별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연차별 핵심 사업 등도 발굴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서해선 개통에 맞춘 진출입도로 및 연계도로망 구축, 연계교통망 시설 확충, 대중교통 연계체계 마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재현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연계교통망 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자 편의와 접근도 이용 수요를 높여 '나홀로 역사'를 예방하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황해 아산시 경제시대 또는 하나의 국가 대동맥이 될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역과 경기도 화성 송산역을 연결하는 90.01km 노선으로, 3조 8289억 원이 투입된다.

예정 노선은 홍성과 예산, 당진, 아산, 경기도 평택과 화성 등으로 8개 역이 설치되며, 이 중 합덕역과 안중역, 송산역 등에는 화물 취급시설이 설치돼 물류 처리 역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투입 열차는 새마을호보다 속도가 1.6배가량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250)이다.

도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1시간 49분(장항선)에서 53분으로 줄어드는 등 수도권 접근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세종시, 정부30 일환 맞춤형서비스... 고등학생 중신규 대상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공공기관

을 방문하지 못하여 과대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30 3대 추진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초 세종시는 6월 중순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연기되어 9월에 시작하게 됐다.

9월 아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신청학교인 한솔고는 11일, 도담고 17일, 세종하이텍고는 10월 6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정환기자

품성 ZERO '물돼지' 유전자로 찾아라

도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양돈농 대상 PSS 유전자 검사 실시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정연)는 상품성 없는 물돼지를 사전 도태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증후군(PSS: Porcine Stress Syndrome) 보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PSS 유전자를 가진 돼지는 도축 단계에서 물돼지 육(PSE육: Pale Soft, Exudative)을 발생시키며 식육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 양돈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약 1만 3000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200여두의 PSS 유전자 보유 돼지를 찾아 농가에 도태를 권고해 왔다.

올해에도 이미 도내 9개 시·군에서 1000여 두를 신청 받아 분석 중에 있으며, PSS 유전자 보유축에 대해서 도태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내년

부터 폐지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돈장 및 센터를 중심으로 PSS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PSS 유전자는 유전에 의한 손실로 조기에 검출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된다"라며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이번 PSS 유전자 검사에 도내 양돈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부터 폐지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돈장 및 센터를 중심으로 PSS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PSS 유전자는 유전에 의한 손실로 조기에 검출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된다"라며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이번 PSS 유전자 검사에 도내 양돈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명절 대비 건설현장 117곳 체불 점검

행복정, 모든 현장 감리자 근무상태 점검도 병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춘재, 이하 행복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22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117곳)의 노임·장비대금 등 대금체불 여부와 감리자의 현장관리 업무(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와 비교해 4억 6000여만원 약 5.4% 증가한 것으로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3.5%, 공동주택가격 4.7%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4개조, 9명)은 기성급·노임 등의 적기 지급 여부 및 감리자의 현장 시공상태 입회 확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명품도시가 걸맞은 최고 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예산군 토지·주택 등 재산세 90여억원 부과

지자체 比 5.4% 증가한 90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예산군은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만5000여건에 대해 90여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4억 6000여만원 약 5.4% 증가한 것으로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3.5%, 공동주택가격 4.7%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tax.go.kr) 또는 지로(j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 '지방세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말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업무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도 과부하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추석 전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내포=이지용기자

홍주성역사관 상설전시실 개관

당초 70점의 유물서 430점으로 6배이상 유물 증가

홍성군은 9월 3개월간의 상설전시실 개관공사를 마치고 김석환 홍성군수, 이상근 홍성군외장, 홍문표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주성역사관 상설전시실 재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공사는 유물구입, 기증·기탁 유물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공간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지문회의를 거쳐 전시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상설전시실 전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 당초 70점의 유물에서 430점으로 6배이상 유물이 증가했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관내

에서 발굴된 옥마리 구석기유물을 시작으로 신금성, 남강리 유물까지 구석기에서 조선시대를 망라하는 유물을 대거하였고, TV전품명품에서 최고감정가를 기록한 석현한유도를 비롯하여 전운상 영정 등 도지정문화재 유물이 전시됐다.

또한 2013년 기념방아 도지정문화재 지칭 중인 남당 영정을 비롯해 남당 환원진 유물도 대거 전시돼 한성준, 홍성 근대 전시공간을 신설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시 구성은 '이 땅에 살았던 사

람들의 흔적', '나는 홍주사람이요', '기호유학의 큰별 남당 환원진', '홍성의 의로운 역사 빼어난 역사', '근대 홍성'으로 5부분으로 구성되어 구석기부터 근대까지 홍성의 어제와 오늘을 모두 전시하였다.

홍주성역사관 관계자는 "이번 재개관으로 유물이나 전시 측면에서 지역박물관으로 충남도청 이전 때 한성준, 홍성 근대 전시공간을 신설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시 구성은 '이 땅에 살았던 사



상팔어장 본격 어장개발

홍성군, 해상경계 측량 실시·표지설치 완료

홍성군은 헌법재판소에서 천수만 상팔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3월 태안군과 함께 양 자치단체 어업인 대표 입회하여 상팔어장의 해상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계측량 결과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전체 상팔어장 면적은 약 200ha 정도이고, 그 중 무효화된 태안군 마을면허 중 홍성군으로 편입된 면적은 34ha로 이 면적에 대하여는 금년 중 홍성군 관내 7개

어촌계 공동 지분으로 면허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도 상팔어장 내 경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상팔어장을 두고 이웃 자치단체인 태안군과의 갈등을 해소해 천혜의 자연 보고인 천수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세종시, 대한민국지역희망박람회 참가

박 대통령 전동면 짚풀공예 관심

2015지역희망박람회가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6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활동 등 세종시민의 특징

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막식 후 세종전시관을 관람한 박대통령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모범사례로 선정된 전동면 짚풀공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15 지역희망박람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지역발전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지역발전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다.

세종=김정환기자

장애인 콜택시 5호차 전달식

홍성군, 지난해 8554명 1만4477회이용이동권 보장 큰역할



홍성군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5호차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복천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 5호차는 저상형 장애인차로 오토슬라이딩도어, 승강구 보조자동발판, 승객용 안전손잡이 등 탑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홍성군 내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하지 3급 장애인과 장애

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1천원, 추가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돼 운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8,554명이 14,477회에 걸쳐 이용하면서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5호차 전달 운영으로 군내 장애인 교통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따라, 2016년까지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동정

미래비전 위원 간담회



복기왕 아산시장은 10일 오후 3시 시청실에서 열리는 미래비전 위원 간담회에 참석.

사회적 경제인의 밤 행사



김홍태 당진시장은 10일 오전 10시 고대실 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당진 교육사랑유아축제에 참석, 오후 3시 열린시장실에서 열리는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관련 우강면대책위원회에 참석, 오후 6시 시청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사회적 경제인의 밤 행사에 참석.

업무구상 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는 10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업무구상 보고회'에 참석.

국악 축제



이석화 청양군수는 10일 저녁 7시 30분 청양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그랬슈' 콘서트 국악 축제에 참석.

교육사랑 유아축제



심재진 당진교육장은 10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당진교육사랑유아축회에 참석.

비봉면다문화가족간담회 열려

청양군 비봉면(면장 성홍제)은 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정 7가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소통과 공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사회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및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모씨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서로 안면도 익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성홍제 비봉면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루빨리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산도서관 '9월 독서의달' 행사 풍성

청양군립 정산도서관이 9월 '독서의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정산도서관에 따르면 30일까지 한 달간 ▲대출권수 확대 이벤트 ▲도서 연체자 대출정지 해제 ▲도서관에서 조물조물바디클렌저 만들기, 마카롱만들기 ▲과월호잡지 및 부록나눔 등 도서관 회원이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 읽기 좋은 계절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이나 궁금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lib.cheo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정산도서관(940-2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10월 2일 개막

'펼치자 충남의 꿈 빛나는 당진에서' 슬로건 아래 총 23개종목 7000여명 선수단 참석

당진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24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펼치자 충남의 꿈 빛나는 당진에서' 슬로건 아래 총 23개종목 7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민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충청남도 생활체육

인들의 진정한 한마당 잔치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의 주재 아래 관련부서장 20여명이 참석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홍보 및 기자실 운영 ▲지원봉사자 운영 ▲위생업소 관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대책 ▲환경정비 ▲광고물 일제정비 등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실시했으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사항 토론, 대회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대책에 대한 논의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시는 대회기간 15개시군 1만5000명의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110개소에 대한 숙박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

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펼치자 충남의 꿈 빛나는 당진에서' 슬로건에 맞게 스타트치 어리당공연, 마칭밴드공연, 멀티미디어쇼 등의 행사가 이루어질 화려한 개막식이 오는 10월 2일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열려 대회개막 분위기를 띄우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코레일 용산역과 자매결연 체결

철도관광 상품 확대 추진 · 관광자원 홍보에 청신호



태안군이 서울 용산역과 손잡고 철도를 활용한 농촌체험 및 관광자원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서울시 용산역 역장에서 군-용산역 간 상호 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군과 코레일 용산역 간 효율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군과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 철도여행이 올해 누적 관광객 수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리에 운영됨에 따라 전격 추진됐다.

태안=김정환기자

사람 넘치는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청양군,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창구 운영

청양읍(읍장 최화웅)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충남도립대 학교 구내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창구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된 이번 전입신고 창구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대학생 대상으로 전입신고 즉시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거주 1년 후 1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하는 시책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화웅 청양읍장은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창구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인구증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넘치는 동네, 활기찬 청양읍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정부 3.0 수혜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보건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실시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은 지난 7, 8일 양일 간 아산시보건소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이·통장 및 일반인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런 심장

마비 환자에 가슴 압박만으로 정지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소생시켜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생사의 갈림길에선 환자의 끝단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응급처치술이다.

이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을 위한 것으로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박세훈 교수의 강의와 보조강사인 응급구조사에 의한 실기 실습 교육으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Hands Only CPR) 교육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 동영상 정취 순

으로 진행됐다.

아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며 "매년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일제 점검 실시

청양군이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교통안전, 유해

환경, 식품안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등 4개 안전 분야에 대해 일제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유해환경 정비 분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식품안전 분야 학교급식소·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는 학교주변이나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 음

란·폐쇄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과 함께 현장에서 정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노(NO)노(老) 행복키움' 출범

당진시가 9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노(NO)노(老)행복키움' 출범식을 가졌다.

'노(NO)노(老)행복키움'은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와 (재)당진시복지재단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328개)과 2만6000여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통해 나

눔문화를 확산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분행사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식전행사에서는 가수 선정, 씨네크, 신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KBS대능나눔사단단장 김상희씨 MC

이 펼쳐졌다.

이어 분행사에서는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으로 유명한 SBS 손범규 아나운서의 당진시복지재단 홍보대사 위촉식 및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저금통의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손아나운서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봉사활

동을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삶을 확장시켜 새로운 사람들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NO)노(老)행복키움'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앞으로 매년 어르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활동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노인들의 자율적참여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온양3동 '에텐의 집' 따뜻한손길 나뉜다

온양3동 남·여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성만·부녀회장 장복연)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8일 둔포면 신남리 소재 사회 복지시설 '사랑의 집 에텐'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날 봉사는 시설인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변환경을 정리했으며, 에텐의 집 생활인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직접 먹여드리고 과일까지 대접하는 등의 봉사를 실시했다.

김성만·장복연 회장은 "회원들의 나눔 실천이 시설과 생활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져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양3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997년 '사랑의 집 에텐'과 인연을 맺은 이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올해 4번째 방문하여 환경정리와 식사지원 등 행복나눔 상생복지지원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마당극 신비의 영약을 찾아서' 공연

태안군, 심뇌혈관질환예방·생활속 관리 중요성 설명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마당극 '신비의 영약을 찾아서' 공연을 펼친다.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군 보건의료원과 도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별부부진을 패러디한 마당극 형식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생활속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유쾌하면서도 유익한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공연을 위해 마당극패 '우금치(감독 류기행)'를 초청, 질 높은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공연장 밖에서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해 ▲사상체질 검사 ▲체지방 측정 ▲심폐소생술 체험 ▲염도 측정 ▲시력 검사 ▲구강검진 ▲즉석사진 촬영 등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 입장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41-671-5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이웃지킴이 발대식 열려

둔포면, 사각지대 발굴·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아산시 둔포면(면장 신성철)은 관내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참여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지난 8일 둔포면 새마을부녀회와 행복키움 우리이웃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우리이웃지킴이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선서문 낭독, 동영상상영, 우리이웃지킴이 역할교육,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둔포면 이웃지킴이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현장에서 접근성이 좋고 마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녀회장들로 위촉했으며, 매주 1회 주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고 복지담당자와 상호연락체계를 갖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영숙 둔포면 새마을부녀회협의회장은 "이웃지킴이 활동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며 새마을 취지와 부녀회의 역할에 맞는 활동"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이에 신성철 면장은 "우리이웃지킴이 여러분들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번 계기로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즐거운 추석명절 '시민안전' 최우선

논산시, 재난취약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즐겁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4일 재운면 일원에서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1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시설점검 및 노후되고 불량한 시설 정비비를 실시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난취약가구 12가구에 쌀 10kg 13개, 화장지 13개(시가 500천원 상당)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2005년 6월 조직된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은 물론 취약계층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논산시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및 불량한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논산=한대수기자

'열린상담실' 일사천리 민원해결

부여군, 칸막이 없는 신속한 민원처리 만족도 높여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7일부터 민원봉사과에 "열린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열린상담실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간부공무원 2명이 상담관으로 배치되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간 통합 조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소통 상담 ▲불편·부당 민원에 대한 상담 해결 등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해 추진됐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주중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를 집중상담시간으로 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복합민원이나 2차 민원인 경우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소집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중심의 열린행정을 실천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열린상담실에 많은 군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군정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 등을 해주길 바란다"며, "각 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처리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만들기를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추석 명절 맞아 과대포장 집중 점검

천안시, 백화점·대형마트 등 13개소 대상

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

시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 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에 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과대포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포장공간 비율이 대표적으로 종합제품의 경우 25%(품목별 10~35%)를 초과하여 포장하는 것이 해당되며,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이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 허례허식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습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성적서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국도23호~추모공원연결도로 본격 추진

천안시, 30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실시설계 용역 진행 2016년 착수

천안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도 23호선과 천안추모공원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2016년부터 착공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국도 23호선과 추모공원을 연결하는 봉남구 광덕면 원덕리 추모공원 입구 연결도로 개설을 전액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모공원에서 국도 23호선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과 천안 추모공원 이용객들이 우회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전국 국도병목지점 개방 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게 됐으며,



국도교통부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다. 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게 됐으며,

시는 오는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2016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량은 길이 394m, 폭 7m로 개설하게 된다.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국도23호선 등 광역교통망 체계 접근성 확보와 추모공원 이용자 민원 해소, 지역 농특산물 유통비율 절감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중부권 최고의 정례시설인 천안 추모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대한민국친환경대상 식품안전부문 '대상' 수상 영예

논산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여

논산시시장 황명선이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0회 2015 대한민국친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식품안전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주최하고 정부 10개 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친환경대상'은 각 분야의 교수,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친환경을 실천하는 자치단체·기업과 기관·개인 등 부문별 대상을 선정하는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가운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경영·기

술·연구·교육·실천에 앞장서 온 자치단체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했다.

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감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위생관리 체계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호감시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친환경 사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사는 것감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강경발효젓갈 우수판매업소인 '죽한가게, 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젓갈상인들의 자발적 품질인증 사업인 「강경젓갈명품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정화된 식품안전특구로서 타 시군에 귀감이 되고 있다.

황명선 시장은 "앞으로도 강경에서 유통되는 각종 젓갈류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강경젓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한대수기자

'중국은 우리의 내수시장이다' 자치대학 열어

부여문화원에서 산하 공직자 및 주민 3000여명 참석



'내가 대한민국이다' 특별교육 실시

생활개선계몽시연합회, 나라사랑 다짐의 시간 가져

생활개선계몽시연합회(회장 김영숙)는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단체로서 역할 고취와 소통, 나라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마련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가 대한민국이다'라는 특강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한 피부관리법'이란 과제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나라사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홍목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마음

으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라사랑의 길이"며, 10월 개최되는 군문화제가 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행사를 주관한 김영숙 회장은 "생활개선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은 것들이 모여 단체, 계몽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더욱 발전하는 생활개선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특강을 통해 세계경제대국으로 커진 중국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부여군 공무원으로서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배우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관내 수출기업 관계자 및 주민과 부여 젊은 공직자도 구성된 '부여비전 주니어보드'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여=이정복기자



한편 생활개선계몽시연합회는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 가공기술을 실천과 농촌·가족문화 계승 등 지역사회와

계몽시 학교 주변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계몽시(시장 최홍목)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주중과 주말을 이용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요 도시에 위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8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에 나선다.

특히, 통학길에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 및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비결과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몽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몽=주선용기자

"희망찬 서천의 미래, 군민평가단이 앞장선다"

서천군, 제1기 군민평가단 회의 열어... 체계적 활동 논의



서천군은 '제1기 서천군 군민평가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9월 8일 개최했다.

총 19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군민평가단은 지난 7월 3일 위촉식을 가진 바 있으며 그동안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보고회와 2025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회, 2016년 시책구상 보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군민평가단 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행정·관광문화, 복지·환경·안전문화, 산업·경

제·도시개발문화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군민평가단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군정의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 보완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기민감 이 의견을 나누으로써 희망이 가득한 서천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을 당부했다.

한편, 군민평가단은 오는 10월 초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2015년 서천군을 빛낸 10대 사업 선정 등 각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선 기자

통정	
간담회	
	구분영 천안시장= 10일 오전 10시 세종웨딩홀에서 열리는 재능나눔사업 권역별 간담회에 참석
여성대회	
	황명선 논산시장= 10일 오전 10시 30분 연산백중놀이전수관에서 개최되는 연산백중놀이 재연 행사에 참석,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개최되는 논산시 여성대회에 참석.
라이언스클럽 자선콘서트	
	최홍목 계몽시장= 10일 저녁 7시 계몽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라이온스클럽 자선콘서트 참석.
가우처울 준공식	
	노박래 서천군수= 10일 오전 11시 서면 마라리 아펜젤러순작기념관 '가우처울' 준공식에 참석.
백제문화제 준비상황보고회	
	이용우 부여군수= 10일 오후 4시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 준비상황 보고회 참석

계몽시(시장 최홍목)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주중과 주말을 이용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요 도시에 위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8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에 나선다.

특히, 통학길에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 및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비결과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몽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몽=주선용기자

서천군은 9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이며,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고, 양성평등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축하 및 아동·여성폭력이 없는 살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 폭력 예방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또한 2부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특강에 참여하여, 성평등 리더십 훈련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기여하였다.

서천=김태선 기자

동정

시장과의 만남의 날 행사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 행사 주제 오후 2시 환경성질향에방관리센터 관리방안운영 중간보고회 참석.

여성도의교실 특강



김동일 보령시장 = 10일 오전 10시 대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여성도의교실 특강, 오전 11시 30분 디디다이어에서 열리는 기업체 근로자와의 간담회, 오후 1시 30분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연찬회, 오후 4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128회 비바보링 아카데미, 오후 7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4회 한국미술협회 보령지부전,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제19회 보령에술제 개막식 참석.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식



이완섭 서산시장 = 10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대산읍사무소에서 한화토탈 이동세탁차량 기증식에 참석,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시상식 참석.

교육삼락회 9월 정기회



박도순 보령교육장 = 10일 오전 11시 30분 보령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보령시교육삼락회 9월 정기회 참석.

서산시, 2015 대한민국친환경대상 본상 수상

모범적 생태환경도시 조성 노력

서산시가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시는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친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친환경대상 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이 상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힘써온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수여한다.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중앙호수공원 환경개선 노력, 대규모 생태하천복원사업, 철새 보호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서비스 설명·특별지원대상자 심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공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일)를 8일 개최했다.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신입 위원에 대한 위촉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최호식 센터장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 보호, 긴급구조, 교육, 자립, 의료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통합지원과 상담지원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하

고, 참석한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심의에서는 기존의 제도와 범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특별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내용을 결정했다. 전경일 시민국장은 "시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 수요조사, 지원체계 구축, 예산 확보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주=정성범기자

로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서산버드랜드를 설치해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등 모범적인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태복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환경 및 생태 분야에서 2013년 친환경도시대상, 2012년 녹색도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백제문화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제61회 백제문화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홍현) 주관으로 자원봉사단체장과 실무자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주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19개 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제61회 백제문화제 행사안내, 봉사단체 선발 및 배치 현황, 유사시 보고체계, 자원봉사자 업무지침 등을 논의했다.

이런 백제문화제에는 종합안내소, 물품보관소, 퍼레이드교류왕국, 매표소, 미아보호소, 동물보호소, 거동불편도우미, 관공안내, 웅진성퍼레이드, 곰두리열차, 백제문화제주제관, 인절미축제, 실경공연, 도로명주소 홍보, 의료·보건, 교통주차안내 등 총 16개 분야에서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18일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19일 백제문화 성공기원 공주시청 환경정화활동, 2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다가오는 백제문화제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신홍현 센터장은 "그동안 백제문화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공주인의 미소와 친절로 다시 찾고 싶은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보령시(주)이인물류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협약

생산·유통단체 간가고 역할 기대

보령시와 (주)이인물류, 농특산물 생산·유통자 대표가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된다.

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협약 체결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이종근 (주)이인물류 대표이사와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유통 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5일 (주)이인물류와 업무협의를 가졌고, 20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이번 협약을 위한 상호간 교류를 강화해오고,

청정지역 보령의 대표적 무궁해 상품인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포도, 블루베리, 무화과, 양송이 등 특산물에 대한 홍보기회와 직거래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판교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온 지역농가의 안정적 수입원 보장 등 실질적 혜택이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보령시는 (주)이인물류가 향후 보령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하는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과 분사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정보제공과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주)이인물류는 보령시의 농수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신규 상품개발·판매를 위해 (가정)이인물류를 이용한 보령시 농특산물 종합판매 및 농산물 유통 등 융복합 6차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협약체결 후에는 이인커머스 쇼핑몰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농산물 도매시장 납품 운송이 추진된다.

특히, 2016년도 이후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주)이인물류 분사와 물류단지 보령이전을 검토하고 성주면에 박물관과 수목원도 조성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녹지 공간 조성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신뢰받고 탄탄한 기업인 (주)이인물류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교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에 나서 아주 큰 힘이 된다"며, "보령출신 이종근 대표이사와의 협력으로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공직자 대상 SNS 홍보요원 발대식 가져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한다

보령시가 정보화시대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각종 정책·관광·축제 등을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코자 9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직자 대상 SNS 홍보요원 발대식과 교육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50명의 공직자 SNS 홍보요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외래 강사로부터 SNS 트렌드와 홍보효과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책과 관광 보령의 홍보가 미흡하고 스마트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방법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다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 각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공무원 각 1명씩을 홍보요원으로 지정하여 발대식을 갖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요원들은 SNS의 최대 강점인 빠른 전달력과 쌍방향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시책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름답고 행복한 보령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 이미지를 시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령시는 2011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시정 홍보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령=김태선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서산시, 제13회 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

생산자-소비자 간 정보교환 마련

한국쌀전업농 제13회 충청남도 대회가 11일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에서 열린다.

(사)한국쌀전업농서산시연합회(회장 이덕준)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

각하고 쌀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등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된다.

'충남쌀의 미래는 쌀전업농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풍년기원 떡나눔과 각 시군 브랜드쌀 전시, 쌀

역사 사진전 등 우리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방안을 찾고 충남 쌀전업농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지원에 힘쓰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enfiren advertisement with image of children and a tire. Text: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enfiren 앙프랑 효과란? Hankook driving emotion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 8시30분)



인사발령을 거부한 성태에게 분노한 봉주는 양희장을 찾아가 성태를 해고해달라 때를 쓴다. 하지만 미동도하지 않은 양희장에 섭섭한 봉주는 가슴을 선언한다. 한편, 성태는 현주에게 지금의 부친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브의 사랑 (MBC오전 7시50분)

삼내 수영장에서 호흡곤란으로 물에 빠진 켈리(진서연)를 유연히 다이빙대에서 발견하고 강민이(동하이) 구하는데, 켈리가 오랜지 알려지 때문에 호

케이블 영화

▲도둑들 (OCN 오후 5시00분)

10인의 도둑, 1개의 다이아몬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 뺑배이와 예니콜, 썬더검, 잠파노, 미술관을 터는데 멋진 성공한 이들은 뺑배이의 과거 파트너였던 마카오박이 제안한 홍콩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듣게 된다.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급들이 뺑배이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향한다.

홍콩에서 한국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4인조 중국도둑 켄, 앤드류, 줄리, 조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팅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

평평히 흐르는 긴장감 속에 나타난 마카오박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물을 밝힌다. 그것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지만 2천만 달러의 답찰을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은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한 작전에 착수한다. 그러나 진짜의 도둑알 수 없는 비밀스런 마카오박과 그런 마카오박의 뒤를 수를 노리는 뺑배이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아트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OCN 6:00 파파라티 8:20 뽀빠이 10:30 차용2 11:30 차용2 13:00 파스타야벤저 15:20 브릭 앤드 스톤: 동계 올림픽의 숨겨진 이야기 19:30 사보타주(2014) 21:30 스포츠특파원 디카니

◆MBC스포츠플러스 7:00 2015 메이저리그 추신수,강정호 하이라이트 7:30 2015 메이저리그 앤드류 맥카인,내 8:00 2015 메이저리그 14:00 2015 메이저리그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22:00 베이스볼 투니잇

◆YTN 8:00 이슈 오늘 10:40 뉴스타임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문의 시사탐방 20:15 YTN 24 21:00 뉴스인간

◆MBC 뮤직 7:00 MBC MUSIC HIT SONGS 10:40 복면가왕 12:20 주간 아이돌 13:20 2015 DMC 페스티벌 개막 특집 K-ICT와 함께하는 K POP 슈퍼콘서트 14:50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 15:20 WEEKLY HOT MUSIC 16:20 복면가왕

◆채널 CGV 5:00 도화야 7:00 완득이 9:00 무버스터커 10:10 주성치의 장강호 12:00 대통령의 딸 14:00 페이스오프 16:30 클루니: 지구 최후의 날 18:30 내일 21:00 주일영화 22:00 내 아내의 모든 것

◆SBS스포츠 9:30 베이스볼 크레이지 10:00 2015 베이스볼 S 11:00 2008 베이징 올림픽 한일전 명승부 12:00 원아이가 코로롱 한국오픈 16:00 한국계 무패북서, 콜로포인 스페셜 17:00 2015 베이스볼 S 18:10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22:00 2015 베이스볼 S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 특급 10:00 마켓퍼커스 12:00 제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성공투자 오후 증시 16:00 글로벌 제테크 알아야 번다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9:00 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취업의 진실 22:00 대박천국

◆애니맥스 6:00 뽀빠이 탐험대-카고와테라클 7:30 고스트 넘자고 8:00 검정고무신 4 9:00 해피하모니 다과고치 10:00 코코몽 10:30 유우와 친구들 3 11:30 꼬마버스 타요 3 12:00 헬로 카봇 2 13:00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14:00 검정고무신 4 16:00 퓨처 카드버디파트 17:00 맥스 스틸 18:00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Mnet 7:30 M morning 8:50 발칙한인턴부 47자소 9:50 연프리티 랩스타 11:00 Mnet Music Twt(SNS) 11:50 슈퍼스타K7 HOTCLIP 12:10 너의 목소리가 보여 13:40 연프리티 랩스타 14:50 헤드라이너 15:50 연프리티 랩스타 16:50 슈퍼스타K7 HOTCLIP 17:10 Daily Music Tak (SMS) 18:00 M COUNTDOWN 19:30 헤드라이너 20:30 슈퍼스타K7 HOTCLIP 20:50 Live on M(SMS)

◆온스타일 6:25 WSH 7:20 무던 패밀리 시즌5 8:10 갓이티2015 9:15 달콤정춘 10:15 더 비디쇼 11:10 유미의 방 12:00 갓이티뉴스셀프2015 13:20 휴연의 백만라이크 14:45 채널 소녀시대 15:55 더 비디쇼 16:40 갓이티뉴스셀프2015 16:55 현장토크쇼 택시 17:50 나의 귀신님 20:15 명단공개 21:10 달콤정춘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7:00 가장 빠른 치타가 되다 8:00 아시아헌터 9:00 건강하얏트, 메디칼365 10:00 사이언스 오브 슈퍼퍼2 11:00 순간극작 위험한 동물들(2) 13:00 희귀 동물들의 천국, 페루 마누강 14:00 숨겨진 지상 낙원, 멕시코 코비하 15:00 나는 자연인이다 16:00 TV 동물농장 18:00 나는 자연인이다 19:00 나는 자연인이다 20:00 미어캣 가족의 협동적 전 21:00 유튜브실질실

◆JEI 재능방송 5:00 Roly Roly, Show me the Story 6:00 시크릿 슈퍼3기 7:00 고스트 넘자고 8:00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9:00 뽀빠이 탐험대 10:00 공룡짱짱 라라 11:00 꼬마버스 타요 3 12:00 매일일마 2 13:00 바이블론즈 14:00 블레이징 팀스 5 레전드 전 사Part 2 15:00 New 야구공룡들리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program titles and times for each channel.

청양군 '투르드 코리아 2015 스페셜대회' 준비 분주

내달 30일 전국 사이클 동호인 300여명 칠갑산 주변 등 질주



청양군이 내달 30일 칠갑산 주변을 비롯한 군내 77km를 질주하는 '투르드 코리아 2015 스페셜대회' 준비에 분주 나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주최하고 투르드코리아조직위원회, 대한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29일 홍성, 30일 청양, 31일 서천, 11월 1일 아산 등 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관조적 사유의 작가충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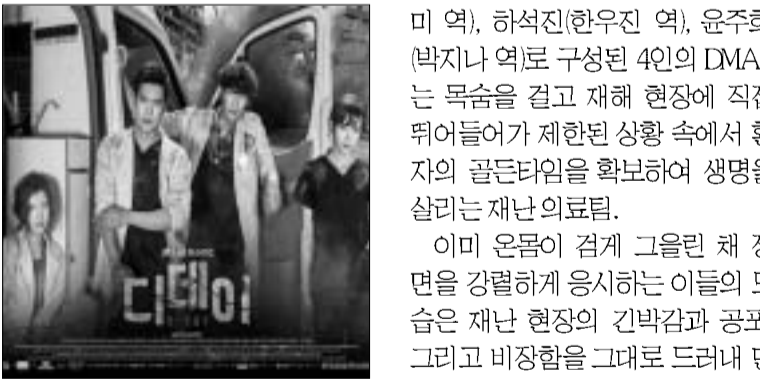
관조적 사유의 작가충남대

관조적 사유의 작가충남대 예술대학장·사진)의 24회 개인전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가회동 60갤러리(02-3673-0585)'에서 개최되고, 이어 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전 도봉동 '보다아트센터(042-488-2579)'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한 자연, Healing Nature"이라는 주제로 지난 40여년 동안 행복한 자연을 찾아 읽고 사색하며 얻어진 '산수풍경' 작품들과, 사외적 관념 속에 내장시켜 다시 무위적 자연으로 재구성한 '사유시대' 작품들이다. 조선성리학이 토대가 된 조선후기 진경산수화가들은 우리 산천의 조형적 본질과 내재된 정신성을 면밀한 관찰과 많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디데이' 재난 의료팀 비장한 모습 담긴 4인 포스터 공개

김영광-정소민-하석진-윤주희 출연



국내 최초 재난 메디컬 드라마 JTBC '디데이'가 서울 대재난의 폐허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4인의 재난 의료팀(DMAT) 배우 김영광-정소민-하석진-윤주희의 비장한 모습이 담긴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뒀다. 오는 18일 첫 방송을 앞둔 JTBC 새 금토드라마 '디데이' 측은, 재난 속에 폐허가 돼버린 충격적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앰블런스 한 대와 4인의 재난 의료팀(DMAT)의 장엄한 모습을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이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 포스터임에도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습 뒤로는 이미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보이며 충격을 선사한다.

2015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JTBC 금토드라마 '디데이'는 서울 대지진, 치절할 절망속에서 신념과 생명을 위해 목숨 건 시투를 벌이는 재난 의료팀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로, JTBC '라스트' 후속으로 오는 18일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관조적 사유의 작가충남대 예술대학장·사진)의 24회 개인전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가회동 60갤러리(02-3673-0585)'에서 개최되고, 이어 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전 도봉동 '보다아트센터(042-488-2579)'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한 자연, Healing Nature"이라는 주제로 지난 40여년 동안 행복한 자연을 찾아 읽고 사색하며 얻어진 '산수풍경' 작품들과, 사외적 관념 속에 내장시켜 다시 무위적 자연으로 재구성한 '사유시대' 작품들이다. 조선성리학이 토대가 된 조선후기 진경산수화가들은 우리 산천의 조형적 본질과 내재된 정신성을 면밀한 관찰과 많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대전서구의회 조성호 의원, 경로당에 베드민턴라켓 지원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성호 의원은 9일 오전 10시, 정림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베드민턴라켓 36세트, 무상보급 지원에 기여했다.



간양대 학부모 초청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의과학대학(학장 공희수)은 8일 장학생 210명, 학부모 68명 등 총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메디칼캠퍼스명곡의학관 명곡홀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천안시산림조합 국산목재로 만든 책·결상 저소득층에 전달 지난 4일 병천면사무소에서 국산목재로 만든 책·결상을 천안지역내 저소득층과 다동이 가정에 전달식을 했다.



청양군비봉면주민자치회 한지공예교실개강 지난 8일 다목적회관의실에서 수강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공예 교실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온양동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 찜갈 판매행사 실시 아산시 온양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영국)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찜갈 판매 행사를 지난 7일과 8일 12층 어린이공원 일원에서 김장찜갈 판매를 실시했다.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본부, 가스시설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장석봉)는 지난 8일 관내 46개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 및 LPG판매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대상학교 참가 대전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8일 ~ 10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제5회 전국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에 학생오케스트라대, 대상여중, 한밭여중, 대전대청중, 뮤지컬대전이문고, 연극중심고, 예술꿈아리덕송초, 대전대동초, 예술중점학교(대전신일여중·고 등 총 9개 학교가 대전 대표 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5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5회째로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대상학교중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초·중·고 145개교 4,168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공연장에서의 연주 경험을 통한 성취감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개막식은 오프닝 퍼포먼스의 연합 공연과 함께 각종 축하

연주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페스티벌 주인공인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하여 17개 시도 교육감, 총장, 부교육감,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한편, 예술교육활성화 대상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 계발은 물론, 지역봉사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주 기회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음악활동을 통한 인성적 접근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아산 농어촌공사,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 대상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박성규)는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노후된 주택을 고쳐주는 "2015 농어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7, 8일 일일 간 20명의 KRC 행복충전 봉사단원이 참여해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인면 창룡리 소재의 이모, 우모씨 집을 방문해 걱정없이 울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화장실, 도배장판, 주변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했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후원으로 설립된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농어촌의 무의탁노년,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편, 박성규 지사장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한편, 매년 지원 대상가구를 늘려 사랑의 나눔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생 입학식

공주대학교 국제교육원(원장 송재일)은 지난 9월 7일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강사와 중국 현지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기 한국어 연수생 입학식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유학생들의 첫 발을 내딛는 46명의 연수생들은 중국을 비롯한 4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로 10주간의 연수기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 이날 신경현 행정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문탐구를 위해 부모와 가족의 품을 떠나 먼 이국땅에 온 연수생들의 용기를 치하한다"며 "연수기간 동안 한국어를 충실히 습득한 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류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세계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교육원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제1기 한국어 연수생 23명의 입학의 시작으로 매 학기 중국인 연수생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1,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현재 연수중인 20여명의 학생들은 연수 과정을 마친 후 외국인 특별전형을 거쳐 공주대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창립 70주년 맞이 나눔 활동 진행



아모레퍼시픽 대전사업부 임직원들은 지난 4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 행사는 창립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전지방보훈청과 연계해 대전과 충남 일대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70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쌀 등을 기부하고 전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창립일을 전후해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창립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아모레퍼시픽 대전사업부 관계자는 "지역에 특화된 나눔 봉사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나눔 활동을 확대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민들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서산시, 제8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성료

서산시는 지난 8일 덕평동홀에서 건강한 모유 수유아와 가족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모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현재 모유수유 중인 생후 2~3개월 사이의 건강한 아기 36명이 참가했다. 이날 서산의료원 이윤석 소아청소년과 과장 등 3명의 심사위원단에서 건강한 모유 수유아와 가족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모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현재 모유수유 중인 생후 2~3개월 사이의 건강한 아기 36명이 참가했다. 이날 서산의료원 이윤석 소아청소년과 과장 등 3명의 심사위원단에서 건강한 모유 수유아와 가족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열었다. 김태선기자

● 동정 ●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안희정 충남도지사 = 10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3시 공간사이전안 두정동 소재에서 열리는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사회적경제인 과정에 참석.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10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8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오후 2시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2015학년도 2학기 유초교원(장) 역량강화 연수' 참석.

대전경제포럼 조찬 세미나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10일 오전 7시 유성호텔 3층 강홀에서 포럼 회원, 기관단체장, 언론, 학계, 상공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178차 대전경제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

안전지킴이교육
유재은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 협회 회장 = 10일 ~ 11일 보령비체팔리스에서 「2015 새마을지도자동맹 동화장 안전지킴이교육 및 워크숍」을 주관.

대전도시철도 '발빠짐' 방지 고무발판' 설치



대전도시철도는 22개 역사 가운데 판암, 대동, 지족, 반석역 등 곡선 승강장 4개역 1백 38개소에 '발빠짐 방지 고무발판'을 덧대놓아 발빠짐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의 안내스티커 부착과 안전전문(스크린도어) 이젝트측에 경광등을 설치해 발빠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관련, 공사는 지난 7월 29일 자동차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진합과 1억원의 관련 연구용역 협약식을 체결, 내년 6월까지 '승강장 안전관찰용 및 인터페이스 방안 연구'를 통해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편의 증진 및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기행문



유기준
아산시회의장

분단70년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필자는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돌아보며 마음 설레는 일인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연해주 여러 곳에서 한인들이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던 지역을 더듬었을 때마다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생각해 잠깐다.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몽구가이 ·포시엣 ·연추 지방을 차례로 탐방하였다. 포시엣은 어떤 곳인가?

우리민족이 큰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다. 농사와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 북한 김일성이 중국에서 러시아 땅으로 넘어와서, 러시아군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러시아군에게 고문을 당하였다. 러시아군은 김일성을 쓸모 있어서, 러시아군으로 편입시켰다. 88여단은 러시아군이 일본군과 전쟁하는 항일빨치산 부대이다. 김일성(김정주)은 88여단 대위로 근무하였다.



(▲ 김일성 체포 장소)

북한에 김일성은 분명히 김정주이다.

김일성 장군은 원래 김정전 장군이다. 김정주가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 김정전 장군은 서울태생으로 일본군 기병장교 출신이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백마를 타고 경흥군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

연해주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서 -4

다.



(▲ 러시아군 88여단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북한 주석이었다 김성주 기씨 김일성이다)



(▲ 김경천 장군이 진짜 김일성 장군이다)

포시엣은 특히 한국 침례교가 1918년에 4명의 총장님도 출신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나 이 바닷가에서 폭풍으로 순교하였다. 박노기목사(1882-1918년 충남 신영리 출신), 김희서(1873-1918년 충남 부여 원당교회 출신), 최응선 감로(서천 출신), 김영태 총장 4명이 원산을 출발-함경도 경흥으로 갔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 도보로 공황한 시베리아 대륙을 20여일 여행한 후 다시 선편으로 연추(크라스키노)로 가기위해 포시엣(Posyet)해의 모카우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배를 타고 모카우지점을 벗어날 때 갑자기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바다 속에 빠져 하늘나라로 갔다. 이 때가 1918년 10월20일이었다.

포시엣은 러시아인 의사가 자신의 직업인 의사직을 포기하고 한인들의 삶의 도구를 모아서 개인 박물관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소개한 것이 특이했다. 포시엣을 벗어나 연추에서 활동한 안중근의사의 단지동맹을 탐방하였다.

안중근 의사를 잠시 정리해 본다.

안중근(1879- 1910)은 한말의 교육자, 의병장, 의사(義士)이며 1907년 이전에는 교육 운동과 국제보상 운동 등 계몽운동을 벌였고, 그 뒤 러시아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1909년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했다. 안중근의 할아버지는 진해 현감을 지낸 안인수이며 안중근의 아버지는 진사 안태훈이다. 안중근은 태어날 때에 배에 검은

점이 7개가 있어서, 복두철성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어릴 때에는 안은철이라 불렀다.

1884년 갑신정변때 개화당의 일원이던 아버지가 황해도 신천군 두리면 청계동으로 피신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세운서당에서 공부했으나, 사서오경까지는 못하고 통감 9권까지만 마쳤다고 한다. 말 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고, 자기집안에 드나드는 포수관들의 영향으로 사냥하기를 즐겨워했고,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다.

1894년 갑오농민이 일어나 해주 감사의 요청으로 아버지(안태훈)가 산포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을 진압할 때 참가하여, 박석필전투등에서 기습전을 감행하여 진압군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95년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에 입교하여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위해, 상하이로 갔으나 상해 유력자들과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을 무렵 아버지가 죽어 다시 외국으로 돌아왔다.

1906년 3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석탄산회를 경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삼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계몽사업을 시작하였다. 1907년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전개하던 때에 안중근은 관서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고종의 퇴위와 한일신협약(청미 7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하자 강원도에 가서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활동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계몽청년회의 인사사찰이 되었다. 이곳에서 이범윤을 만나서 의병부대 창설을 협의하는 한편, 엄인선, 김기룡등과 함께 의병부대의 창설의 준비단계 체인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하고 최재형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의병이 300명이 되자, 이범윤을 총독 김두성을 대상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참모중장이 되었다.

이때부터 두만강부근 노브키에 프스키 또는 크라스키노 한국어 연추지역을 근거로 훈련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1908년6월 특과독립대장 겸 아령지구 군사령관으로 함경북도 경흥군 노면에 주둔중인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했다. 그 뒤 본격적인 국내진공작전을 벌이다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처참하게 패배했다. 왜 패배했느냐? 그 이유는 사료집은 일본군 포로를 국제법에 의거해서 석방해주었는데, 이들이 안중근의 부대를 알고 기습해서 실패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부대는 해체되었다.

안중근과 단지동맹은 무엇일까? 1909년 3월2일 노브키에프스키(연추에서 함께 의병활동을 하던,



(▲ 안중근 의사)

안중근, 김기룡, 황병길, 강기순, 유치홍, 박봉석, 백낙규, 강두찬, 김백춘, 김전화, 정원식, 백규삼 등 12명은 단지회 일명 단지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하고 3년 이내에 성사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한다고 맹세했다. 1909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하는 원동보(遠東報)와 대동공보(大東公報) 신문을 통해 이토히로부미가 북만주 시찰을 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의 대장대신 코코프체프 대신과 회견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얼빈과 채가구를 거사장소로 설정하고, 채가구(菜家溝)에 우역순과 조도선을 배치하고 안중근 자신은 하얼빈을 담당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가 하얼빈 역에서 코코프체프와 열차에서 회담하고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군중 속으로 다가가는 순간, 권총을 쏘아 이토에게 3발을 명중시켰다.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川上俊彦), 공대대신 비서 모리(森三郎), 만철(滿鐵), 이사다 나카(中津太)등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대한만세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1910년 2월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26일 휘문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광복회는 2001년 10월18일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단지동맹의 비를 세우고 그를 기념하여 오고 있다.



(▲ 아산시의회 유기준의장이 단지동맹비가 세워진 비석 앞에서 안중근과 11 동지를 위해 꽃을 받치고 기도하였다)

사설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자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혈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생명이 위급하여 수술시에 헌혈한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 긴급히 수혈해야할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평소엔 헌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심적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귀를 다루는 헌혈급구라는 방송자막을 보면 헌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를 잘 증명해준다. 그런데 요즘은 장기기증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뇌사시에 장기기증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뇌사시에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또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장기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평소엔 장기를 기증해야한다.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평소엔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한다.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그래서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뇌사시에 장기기증으로 9명을 구했다고 해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 그것이 '장기기증'이다.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9일 전국에서 동시에 장기기증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부도 이날 응징이거리에서 2015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 장기기증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서 동시에 장기기증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장기기증을 홍보하고 장기기증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조례 447호 제정 제6조 3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항에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했다. 9월 9일은 '뇌사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로써 이번 2015년 장기기증의 날 행사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장기기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이번 캠페인은 열악한 국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시민들의 장기기증 참여가 활성화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기를 희망하며 거리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기기증자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기를 기증한분들의 가족들이 기증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외 선진국처럼 장기기증인들의 송고한 사람이 칭찬받고 존중받으며, 장기기증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도록 그에 따른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하기에 하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뇌사 장기기증률이 인구 100만명당 8.44명으로 미국 26명, 스페인의 35명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예우하는 국가적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기증캠페인을 벌이면서 더 많은 장기 기증 참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위급한 환자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평소엔 장기를 기증해야한다는 자아의식이 필요하다. 뇌사시에 여러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여 장기가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고 꺼져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애타게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의 송고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장기 기증인을 기억하고, 그 가족을 예우하는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택 이사장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 하는바가 크다.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 또 소중한 것이다. 장기기증이 필요할 때에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뇌사시에 장기기증이 널리 퍼지고 보편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장기기증으로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천사요, 우리가 추구해야할 선(善)이며 나눔의 최고 덕목이다.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장기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라도 평소엔 장기기증을 실천에 옮기고 서로 권장해야한다. 생명을 하나이고 소중한기에 하는 말이며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그래서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가 장기를 기증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의 향기



이재작

별보다 꽃보다 사랑스런 너

별이야
꽃이야
비라도면 눈 맞추고
블러블러 입 맞추는
별빛이야
꽃빛이야

이카야
별보다 꽃보다 사랑스런 이카야
별빛이 어찌 달고
꽃잎만큼 어찌 달아
무럭무럭 밤새 내 돌이 커간단다

네 생각만 하면
화사한 기쁨의 꽃이 한가득 피는 것은
반쯤의 풀가지 사이로
아무도 몰래 별빛 그리운
네 뺨이 곱기 때문이지

내 자식 키울 때는
별보다 꽃보다 사랑스럽기는
내 부모 공경은
지는 뉘시오
떨어지는 꽃이 로구나

창가에 달빛 어리고
산방새시 치맛자락 나풀거릴 때
잠이 든 눈썹
꽃술결이 어여쁘네
배알간네 입술은 봉긋한 꽃망울을 담
있구나

한 부모는
열 자식 기저귀에 향기가 풍겨와도
열 자식은
한 부모 노환에 고개를 돌리는데

이카야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다가
굳이 야욕이야 금쪽 같은 내가
네가 나만큼 살때면
나도 내 부모만큼 늙어가 있으리라

기고

전투경찰 폐지와 새옹지마(塞翁之馬)



김홍권
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나라가 패망하지 않으면 항상 역사의 현장에는 경찰이 함께 한

다"라는 말처럼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전투경찰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된 이래 전국의 전투경찰대, 경찰서 등에서 기간직 작전을 수행해 왔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집회시위 대응, 범죄예방 활동, 교통관리를 비롯한 재해 피해 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대에 오면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정경 차출을 중단했으며 9월 25일 마지막 전경 3211기 183명(전역해 1971년 창설 이래 42년간 운영돼 온 전경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간첩작전 등 임무수행 과정에서 전사한 11명을 포함하여 모두 322명이 순직 하였다. 그동안 대간첩작전 등 전경이 수행 온 임무는 이제 의무경찰이 맡아 수행을 하고 있다.

19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당시, 현역병 입대 대신 시험을 치르고 전경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80년대부터는 전경선발에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1981년에

전경선발을 폐지하게 되었고 결국 현역 입영자 가운데 전경 자원을 차출해 전투경찰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전투경찰은 80년대 민주화의 현장에 공권력의 상징으로 역사의 현장에 국민들과 함께 하였는데 폐지된지 3년 우리들 뇌리 속에 전경을 기억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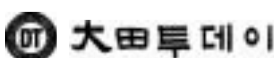
지금쯤 어떤가? 강제로 전투경찰을 차출하던 때는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의경모집에 심대일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만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의무경찰이 된다고 하니 인간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할까?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칼국수 5대천왕



종로칼국수 오시는길

대전대흥점



OPAM



전통방식에 정성을 더해 매일매일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KBS, MBC, SBS, JTBC, 중앙일보 등 총 11번 방송!



손칼국수 ₩3,000

종로할머니 대표 손칼국수/손칼제비



고기만두 ₩6,000

속이 꽉찬 종로할머니 만두



떡만두국 ₩6,000

푸짐한 만두와 쫄깃한 떡이 듬뿍 들어있는 종로할머니 별미



종로야채김밥 ₩2,000

칼국수와 궁합 만점 종로할머니 야채김밥



속 시원한 북어탕 ₩7,000

막혀있는 가슴을 뽕 풀어주는 종로할머니 별미



만두전골 ₩8,000

신선한 야채와 만두의 만남



코다리해물찜 中 ₩25,000 大 ₩35,000



종로보쌈 中 ₩15,000 大 ₩20,000

손칼국수

20년 전 가격 그대로

₩3,000

당일 제조한 육수와 면을 한결같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양질의 남해산 멸치를 우려낸

생육수와 생면을 사용하며 스프나 파우더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방문 시 건물 옆 이안과병원 무료주차장 이용가능

이안과병원 옆 223-2888